



## 행사스케치

독일 하노버 박람회 및 프랑스 그리므드사 방문

# 2010년 오리산업 선진국가 견학·연수

## 독일 하노버 박람회 및 프랑스 그리므드사 방문

글·사진 : 축산신문 이희영



2009년에 이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6박8일의 일정으로 독일 하노버 박람회 및 프랑스 그리므드사의 선진지 연수가 있었다. 이번 연수는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을 비롯해 협회 회원 23명이 참가했으며 독일 하노버 박람회 참관과 프랑스 그리므드사 견학으로 이어졌다. 당초 영국 체리밸리사와 프랑스 그리므드사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영국 체리밸리사에 질병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 일정을 취소하고 독일 하노버 박람회로 일정을 변경해 출발하게 됐다.

18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연수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 숙소로 곧장 이동했다. 첫 날 묵은 호텔은 우연찮게 오리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150여년 전 오리사냥을 나온 독일

인들이 묵었던 숙소로 호텔 곳곳에 오리와 관련된 장식들이 특히 많았다. 바닥 양탄자를 비롯해 문고리, 안내표지판, 가로등, 오리그림 등 다양한 오리관련 장식품들이 있었다.

◎독일 하노버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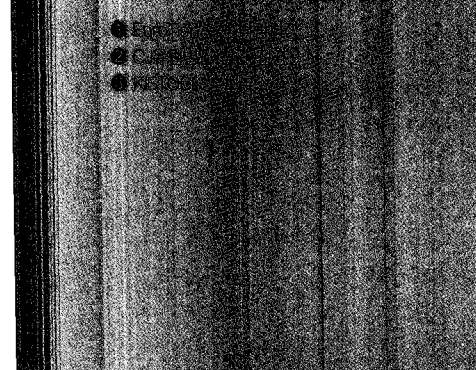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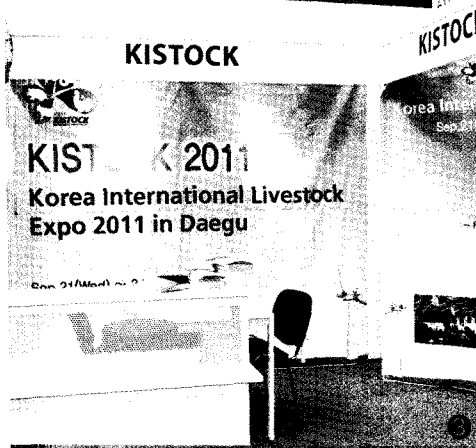
이튿날 연수단은 독일 하노버 박람회 참관을 위해 버스로 이동 하노버 시내로 이동했다. 하노버 축산박람회는 유럽 최대의 축산박람회로 '친환경·동물복지 중점 첨단 신기술 경연장' 이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환경, 웰빙, 자동화, 바이오가스 등 세계적인 축산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박람회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됐으며 연수단은 19일 마지막 날 관람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48개국에서 1천800개 업체가 참가해 지난 2008년도보다 100여 업체가 더 늘어났다. 특히 유로티어가 개최된 하노버 그라운드 전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큰 전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코엑스와 맞먹을 법한 규모의 전시관이 무려 30개가 넘는다. 유로티어에서는 이 중 10개 전시관에서 나눠 개최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규모로 진행됐다. 관람객 수도 지난 2008년도 13만 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출품업체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인 만큼 독일 업체가 724개로 가장 많았으며 네덜란드가 134개 업체, 프랑스 90개, 덴마크 56개, 중국과 이탈리아가 50개, 영국 48개, 벨기에와 스페인의 40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축산박람회 사무국을 비롯해 CJ유럽법인, 다연산업, 엔텍바이오, 인터히트, 려암, 연합축산, KOCA 등 8개 업체가 참가해 유럽에 대한민국의 축산관련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의 주요 특징인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를 위한 웰빙축산 기술을 비롯해 로봇착유기 등 낙농분야의 최첨단 신기술, 바이오가스 등 세계적인 축산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 세계적인 축산동향 한 눈에 파악

이번 전시회는 축산기자재, 양돈, 양계, 낙농, 친환경, 바이오가스 등 14개 세부 분야로 구분돼 전시됐다. 때문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각자의 관심분





## 행사스케치

독일 하노버 박람회 및 프랑스 그리모드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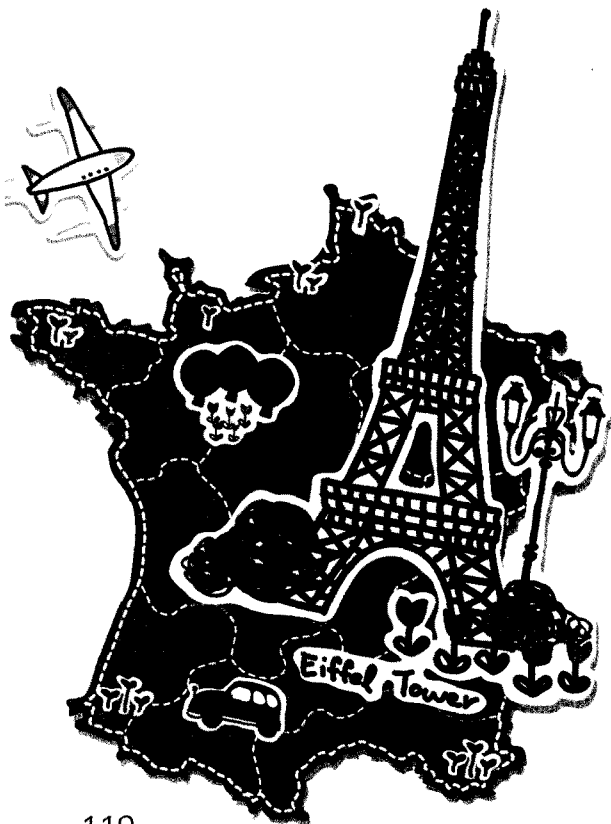
야의 전시관을 찾아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었다. 또 낙농분야와 관련된 로봇착유기, 낙농기자재, 낙농사료 등 낙농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자재와 기술이 낙농관에 집중 전시됐다. 양돈, 양계, 사료, 육종 관련 전시관들도 역시 관련 업체들의 전시관을 구성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능력은 물론 바이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 로봇착유기 등 낙농분야 최첨단 신기술 각축장

낙농분야의 경우 유럽 역시 인건비 상승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을 반영하듯 로봇 착유기 등 최첨단 기술의 각축장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로봇 착유기 업체들의 화려한 부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 • 축산업의 적인가? 동지인가?...바이오가스 산업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바이오가스 분야를 2개 전시관으로 구성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바이오가스 산업의 성장은 가축이 먹어야 할 사료곡물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축산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큰 전시관을 차지할 정도로 새로운 기술이 대거 선보임에 따라 향후 사료곡물을 놓고 축산업과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① 그리므드 본사 환경 ② 그리므드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③ 폐킨 PS농장 진입을 위한 까다로운 출입절차 ④ 폐킨 PS 농장 묘사

### ◎명품의 도시 프랑스 파리

독일 일정을 마친 연수단은 다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프랑스 드골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했다. 유럽의 경우 철저한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주말 일정이 없어 파리 시내를 둘러보면서 프랑스 도착 첫 날을 보내야만 했다.

프랑스 도착 후 파리시내 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세계 최대의 루브르박물관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파리 시내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로 거의 모든 건물이 중세시대 그대로의 모습과 역사를 유지하고 있어 20~30년만 되는 재건축, 재개발을 반복하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었다.

### ◎명품의 나라답게 명품오리를 생산하는

#### 그리므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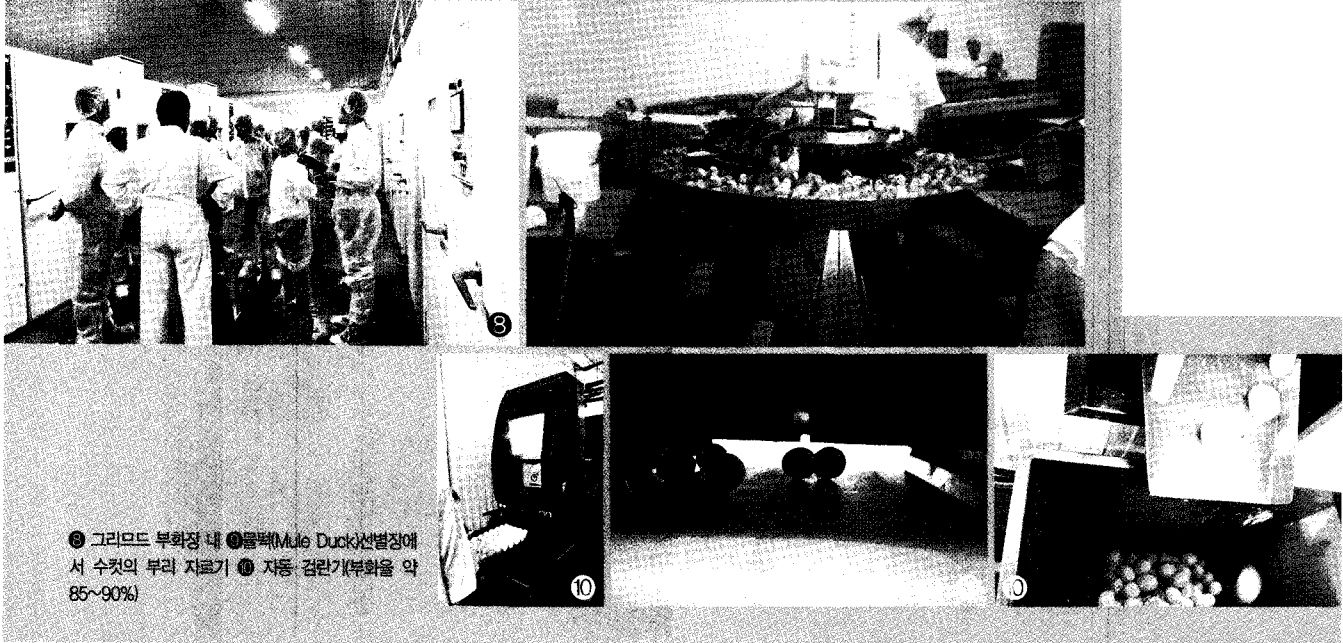
그리므드사는 세계적인 육종회사로 오리는 물론 육계, 산란계, 돼지, 토끼, 비둘기 등 다양한 축종을 취급하고 있었다. 육종뿐만 아니라 백신 등 바이오텍 사업도 그리므드사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다.



그리므드사 본사는 낭트의 Roussay시에 위치해 있으며 농장 및 판매시설은 프랑스내 8개 지회가 이었다. 연구 개발 시설은 프랑스 본사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에 위치해 있으며 육종자회사는 이탈리아, 폴란드, 미국, 중국, 브라질 등에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는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와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에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리비아 등 세계 곳곳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다. 특히 그리므드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육종전문회사로 2008년 현재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종자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사스케치

독일 하노버 박람회 및 프랑스 그리므드사 방문



⑤ 그리므드 부화장 내 ⑥물백(Mule Duck)선별장에서 수컷의 부라 자르기 ⑦ 자동 검란기(부화율 약 85~90%)

이중 육계는 GGPS를 비롯해 GPS, PS 등 총 3천만수 이상을 수출해 세계 시장의 17~18%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5천만수 이상의 GPS와 PS를 수출해 전 세계 오리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므드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페킨종 오리는 물론 푸아그라 생산용 물덕을 비롯해 육용오리인 머스코비 종도 함께 육종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그리므드사는 돼지분야에서는 북미지역에서 2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므드사 처음부터 PL라인을 갖추지는 못했다. 1983년 첫 번째 오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1988년 모스코비와 페킨종 오리 생산농장을 설립하게 됐다. 이후 1991년 육용 페킨종 오리 생산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2005년에 이르러서야 독일에서 PL라인을 도입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므드사의 부화장은 물론 종오리 농장을 둘러본 연수단은 시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썩 좋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종오리 농장들이 더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똑 같은 오리를 키우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고가에 팔리는 종오리로 같은 노동력, 같은 시설로 높은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 연수단의 부러움을 샀다. 그리므드사의 부화장을 비롯해 선별장, 종오리농장 등을 두루 둘러본 연수단은 모든 연수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프랑스 드골 공항으로 이동 귀국길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연수단은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인천공항에 위치한 검역장에서 소독을 마친 후 각자의 일터로 발길을 옮겼다.

## 연수를 마치고

8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연수단과 함께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한 이후 몇 일간은 시차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7일간 동거동락한 연수단과는 많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축산신문 입사 후 오리업계를 담당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점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종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나라는 한우를 제외하고 오리, 육계, 산란계, 돼지, 젓소 등 거의 모든 경제가축의 종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외화를 들여 종자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그리므드사가 보유한 종오리와 사육시스템은 그야말로 부러움 그 자체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종오리를 개발해 자체 보유하며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지만 현실상 PL라인을 개발,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한 단계씩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오리업계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원종오리 사업이 지금까지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원종오리 사업은 우리나라가 종자 독립을 할 수 있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사동소 상  
이희영(기자), 이양선(협회직원),  
조수연(통역), 이창호(협회장)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단체사진